

혐오·폭력·가짜뉴스 알고리즘으로 이용자 체류시간 확대

대책없이 플랫폼만 배불려... SNS, 책임강화 등 규제 절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며 문제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최근 SNS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알고리즘'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은 이용시간을 크게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 빈도를 높였단 사실이 폭로됐다. 비슷한 정황은 타 SNS 플랫폼에서도 계속 발견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은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EU 내 영업을 금지시키는 고강도 규제인인 DMA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SNS로 인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개별 사안에 대해 각기 법률을 제정하는데 급급해 새로운 유형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미국 연방 상원 법사 위원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자사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인해 벌어진 은갖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저커버그 CEO는 SNS를 통로로 일어난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휴대폰을 이용 중인 행인들의 모습. 모바일 기기가 데스크탑에 준하는 성능과 기능을 갖추게 되면서 해킹 피해 강도가 아주 커졌다. /뉴시스

韓,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 화장품·약품 허위·과대광고 등 문제 드러날때 마다 개별적 대응

새로 나타난 문제 처벌방법 없어 '플랫폼 책임강화' 기업규제 제시

사과했다. 저커버그가 청문회에 소환돼 직접적인 사과까지 한 데에는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이 다양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혐의 때문이다.

2021년 전 페이스북 직원 프랜시스 하우스건은 '페이스북 파일즈(Facebook Files)'로 불리는 회사 문건과 회사 내부 전략을 폭로했다. 당시 하우스건의 폭로는 ▲사용자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해 혐오·폭력·가짜뉴스 등 확산 ▲페이스북(현 메타)은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 등이다. 내부인에 의한 첫 폭로에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났고 SNS 알고리즘의 문제와 책임론이 대두됐다.

페이스북의 조치는 철저히 수익성에 입각한다. 혐오·선정적·폭력적·편향적인 콘텐츠와 가짜뉴스의 빈도를 증가시키면 수용자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변한다. 논란을 일으켜 이름을 알리는 '노이즈 마케팅'과 동일한 효과다.

SNS 체류 시간 증가와 반응은 곧 플랫폼 기업의 매출로 나타났다. 페이스북 파일즈 폭로 직전인 2019년 페이스

북(현 메타) 매출에서 보유 중인 SNS 전체의 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의 98.5%에 달했고 연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707억달러(약 82조 3800억원·기준환율 1165.09원)를 기록했다. 광고로 벌어들인 금액만 696억달러였다. 페이스북은 2012년 매출 50억달러(약 5조 원)를 넘긴 후 매년 최소 20% 이상 매출이 상승했고, 상승세에는 늘어나는 광고와 오염된 콘텐츠가 있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매출 상승세는 이용자의 증가도 있지만 동시에 유해 콘텐츠의 방치 또한 이루어졌다는 뜻도 된다.

기업 이익을 위해 방치 한 유해 콘텐츠는 결과적으로 제2, 제3의 문제를 낳는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이 1911명에 달하는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아졌고 반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더불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잦을수록 성폭력 가해행위와 함께 음주 등 탈선도 관찰됐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부정적 콘텐츠들에서 우울감이 상승하고 긍정적 콘텐츠에서는 행복감이 늘어나는 정반대 상관관계도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각 개별 사안에 대응하는 법률이 제·개정하는 것만으로는 첨단 ICT 기술 발전 속도는 물론 해의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알고리즘 개선이

요원하다면 적어도 해의 플랫폼이 국내 범죄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술 발전에 신종 범죄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 10대 사이에서 SNS화 한 제페토 등 메타버스 환경에서 아동 그루밍 범죄 등이 일어나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음에도 아바타의 지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지 못한 탓에 성희롱 등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SNS를 통해 무작위로 퍼지는 정치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도 피해자를 만들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법의 반쯤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스타십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 보호를 위해 몇년간 가짜뉴스를 퍼뜨린 박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민형사 소송은 물론 해외소송까지 벌였다.

해결책으로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 규제가 제시된다. 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면 플랫폼 기업은 SNS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 장기간 대응해온 정희진 탁틴내일 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범죄 발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책무 강화 차원에서 자율규제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고가 제품에 기자 실명 노출 '셀럽' 정용진, SNS활동 화제

"의자샀다" 게시에 판매 이어지고 게시물에 댓글 700여개 달리기도

"SNS 활동, 지지하기도 하지만 자극적 내용에 '양날의 검' 우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이 세간에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드(사진 및 영상)의 정보를 내가 등록한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 때문이다.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형의 자 샀다. 의외로 편해 기자친구들 얼마인지 맞춰봐"라고 SNS에 올렸고, 같은 날 "애더라 그리고 기자친구들, 형 지지 하디드 만나서 밥 먹었다. 그리고 우리 기자친구들 억측하지 말길바래 고마와"란 글을, 27일에는 "애더라 그리고 기자친구들 형 OR 만났다" 등의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 부회장이 기자들에게 질문하듯 작성한 피드가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게시물을 올리 때마다 댓글 반응이 뜨겁다.

이 같은 정 부회장의 SNS 활동은 마케팅 효과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형의자 샀다"라는 피드에 올라간 알락꼬리원숭이, 기린, 얼룩말 등 다양한 동물들과 모피가 덮여있는 사진만

으로 누리꾼들은 해당 의자의 정보와 가격까지 파악해 빠르게 댓글로 정보를 공유하고 나섰다. 심지어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재미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사를 캡처해 게재하는 형태의 게시물도 올리기도 한다. 게시물에는 기자의 본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은 "SNS소통 강화, 장남 등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승부수 통할까"라는 모 언론사의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SNS에 게재했다. 심지어 기자의 본명까지 함께 노출됐다. 해당 게시물의 피드에 정 부회장은 "이 친구야 장남 등장이 승부수면 장녀까지 등장시키면 신의한수겠다"라고 맞받아치는 듯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후 기자를 저격하는 듯한 많은 댓글이 쏟아져나왔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 따르면 "진심으로 기자가 꿈이었던 게 부끄럽다", "기자들 취재안하고 인스타만 보고 기사 작성하네요", "정부회장이 기자분들 밥 줄까지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까요" 등 꽤나 자극적인 댓글들이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의 댓글은 현 시점 734개다.

이런 가운데, 유통업계는 정 부회장의 열정적인 개인활동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정 부회장은 지난 달 2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애더라 그리고 기자친구들 형 OR 만났다"라는 게시물과 함께 OR과 같이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SNS 갈무리

"기자가 마케팅 되고 좋겠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개인정보 보호는 전혀 무신경?"이라는 반대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은 젊은 경영인 중 가장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종종 다소 자극적인 내용도 언급돼 양날의 검으로 작용될 소지가 용이하다. 재미있다는 반응도 많지만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약 84만명의 팔로어를 보유, 재계 젊은 수장들 중 '셀럽'으로 불리며 활발한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아우디 '상품성 강화' 2024년형 A7 PHEV

고급 디자인에 편의사양 확대 적용

아우디코리아가 A7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품성 개선 모델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운전자 편의사양을 대거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은 2.0L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대 합산 출력 367마력, 최대 합산 토크 51.0 kg·m을 발휘한다. 최고속도는 210 km/h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시간인 제로백은 5.8초다.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5.7km/L로 측정됐다. 전기 모터 주행 시 전비는 3.0 km/kWh다.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외관은 새롭게 디자인된 싱글프레임과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와 블랙 패키지를 기본 적용해 프론트범퍼, 리어범퍼, 디퓨저, 프론트그릴이 세련되고 우아한 차체 디자인에 한층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매력을 더했다. 실내에는 내추럴 블랙이노 그레이 인레이, 블랙 헤드라잉, 전동식 스티어링 휠 컬럼 등이 적용되어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중기부, 경력단절여성 창업 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 참여 창업자 모집

정부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한국벤처투자의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마중물도 붓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도 경력단절 여성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을 경력

단절여성 중심으로 탈바꿈해 추진한다.

가장 큰 차별점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창업지원 사업들과 달리 선발한 여성기업의 창업 아이템과 가장 유사한 업종, 경력을 가진 성공한 선배 여성기업 대표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술기반 업종 중 반도체, 바이오, 라이프스타일 분야에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